

2015 8.30 연중 제 22 주일

제 1 독서 : 신 명 기 4,1-2.6-8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 2 독서 : 야 고 보 1,17-18.21 ㄴ-22.27 <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음 : 마 르 코 7,1-8.14-15.21-23 <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우리는 연중 제 22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미사책을 읽다보면 오히려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교회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가르침을 잘 읽다보면 우리세상의 삶의 원리와 정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로 우리세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져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갖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 우리 세상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가져라!” 가 아니라 “나누어라!” 고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지요? “ 가진것이 있어야 나누지?” 그러나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졌어도 가진것을 모르고, 나눌 줄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생명,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었을 때에 바로 행복이 우리 안에 무한히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아간다면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신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실린것을 보았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그러나 그 행복의 느낌은 1년이 넘지 않을 것이다. 만약 3년을 행복하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라, 또 5년을 행복한 느낌을 유지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10년을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유산을 상속하여라, 그러면 평생을 행복하고 싶으면 무엇을 하여야하나? 나누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기쁨도 바로 하느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원리를 이해했을 때에야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나눔이 아깝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명품을 사지마는 남에게 명품을 사주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원리로서 살아가면 나는 비록 명품을 갖지 않더라도 내 이웃들에게 명품을 주었을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환히 웃음을 보여 줄때에 그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1독서 신명기에서는 약속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에 무엇을 보태서도 빼서도 안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신자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이 그들의 법규로, 하느님의 법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을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맞지않고, 이것은 나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빼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사선택하고, 입맛에 맞게 요리하여 이웃들에게 주장을 펴고 또한 강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그렇게 고달프지 않습니다. 누가 내 욕을 하더라도 그 아픔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느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혼을 다하여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들이 나를 헐뜯고 욕을 하더라도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것이 이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된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 약속된 땅을 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제 2독서는 야고보서간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야고보서를 자주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야고보성인께서는 실천적인 말씀을 많이 이야기 하십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서에서 야고보성인께서 우리 신앙의 정의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신앙의 정의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이 우리 종교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사는 사람들을 깔보고, 헐뜯고, 밟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강조를 한다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또 강조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무릇 좋은것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겸손되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고 실천을 못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거짓말 장이 일뿐입니다. 거짓말 장이일 뿐만이아니라 자기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론을 하다보면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공감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 년이고 20 년이고, 또 2 년이고 3 년이고 시작을 했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하면 사람의 마음안에서 온갖 나쁜것들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 나쁜것들이란 “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 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악은 사실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지고, 이세상의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허지만 하느님의 것을 추구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것들이 나오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마음으로 누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것들도 나중에는 다 정당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싶으면, 그것을 진리를 부정하며 사는 삶안에서는 이룰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마음으로 실행할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마음으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위선자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느님의 계명을 다 실천하고 살지는 못 하지만 내 마음과 정성과 혼을 다해서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지? 이 미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한번 양심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파스카를 기념하는 이날
함께 모인 거룩한 백성을 굽어보시어,
저희 입술로 드리는 찬미가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희 안에 심어 주신 말씀으로
온 삶이
거룩하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1-2.6-8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5(14),2-3 ㄱ.3 ㄴ.4-4 ㄱ.5(◎ 1 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 2 독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1,17-18.21 ㄴ-22.27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룰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성

야고 1,18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8.14-15.21-23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